

◆ 지난해 3월 28일 68명의 대형 인명참사를 일으킨 구포 열차충돌 사건 현장.

◆ 10월 21일의 성수대교 붕괴는 3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 성수대교 참사 3일후 발생한 충주호 유원선 화재, 29명이 사망 실종됐다.

# 열린 마당

## 인명경시 · 황금만능이 부른 업보

### 대참회의 시간을 갖자

우리 사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사고에 의해서, 범죄에 의해서 가까운 목숨들이 사라지고 사회적 가치가 능멸 당하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원은 부족하고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곳에 정교구현하겠다는 원, 생명이 왕성하고 활기차게 그 삶을 영위하게 하겠다는 원, 근면과 성실로 복지를 높이겠다는 원이 부족하다. 대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는 욕심, 더 벌겠다는 욕심, 남을 이기겠다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사회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성수대교의 참사는 우리 사회의 해체를 예고하는 커다란 경종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자는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본업의 도리이다. 자기가 짊어진 업은 회피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이득만 취하려 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한 것이다. 만약 공사를 발주한 관청에서 공사와 관련한 뇌물과 부패하게 공사의 발주와 감독, 준공검사를 지켰다면 오늘도 이 부끄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공사를 맡은 업체가 설계에서 마무리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는 대신 뒷단계의 하도급과정을 거치면서 중간마진이나 취학하는 식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까운 여고생들의 옛날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회적 병인을 고려하면서 이번 사고는 현 정부에 이르는 역대정부에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우선 부정부패의 역사사슬이 우리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하는데도, 역대정부는 부패의 환경 속에서 온존할 수 있었고, 한때 기세가 좋던 국민정부의 개혁은 철저하지 못한 채 풀이 죽었다. 사회의 질서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최근에는 공직사회와 기강확립과 복무질서 확립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허약한 인상을 주고 있다. 나사가 빠진듯한 공직사회는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주고 있지 못하다. 민생치안의 부패, 각종사건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 목표를 향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여년의 군사독재정권이 갖지 못한 정통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은 의외일 수 밖에 없으나, 바로 이와같은 국정의 혼란에 대형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범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사회에 덮어씌우는 것이 부적절함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 모두가 '내탓'임을 먼저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우선 대참회의 시간이다.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아끼는가, 우리는 정직하며, 남의 재산에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작은 부딪힘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았는가를 자문해 볼때다. 마지막으로 이땅에 정통을 구원하기 위해 큰 원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다시 쌓는 출발을 해야겠다.

### 눈가림 정치 그만해야

지존파라고 하는 살인집단이 날뛰고 그런가 하면 새금 도둑이 공작에 자리를 틀고 앉아서 국민을 비웃듯이 새금도둑질을 하고 그에 그치지 않고 부정부패의 환승인 공직자가 재산을 통해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명심하길 특히 공직자들에게 경고한다. 기술문명의 산업사회는 마치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 그 권리가 상실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망가져서 지옥의 고통과 정글의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직과 신의, 성실이 자리 잡지 못한 산업사회는 정글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 채 불합리적 성장만을 으뜸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기본 자격이 없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기강의 확립은 성실과 정직이 통하게 해야만 가능하고 그것은 지도층이나 기득권층의 솔선수범으로서만이 정기를 잡을 수 있다. 도둑이 살아서서 편안하게 살고 협잡이 유능으로 평가되어 처벌의 길이 되는 것이 용납된다고 할 때에 어느 공직자가 망설이며 자기 일에서 보람을 느끼겠는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공직자 조는 그 자체가 공동체에 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 남으려면 비장한 각오로 새출발을 하는 정기를 새삼스럽게만 마련해야 한다. 제2, 제3, 제4의 성수대교 붕괴를 막는 일은 기득권층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부패임을 광그리 씻어내는 일과 자체 수습을 통한 쇄신과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 일을 처리, 내지 못하면 우리는 개인으로서나 민족으로서 희망이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번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몇년간 우리들은 대형인명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아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탄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인재(人災)라는 데 있다. 부지런히 출근하던 회사원이나 통근하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참에 대하여 그들을 위로할 말조차 찾을 수 없다. 만일 피해 당사자가 '나'거나 우리의 일가친척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임이 틀림없다. 시간을 전후해 많은 사람들이 다리의 결함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의함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행은 막지 못했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안 개발에 대전의

### 잇따른 人災에 충격...정책 대전환 절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다층적 하청체계가, 우리나라의 건설이 몇 단계의 하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풍토 아래서 올바른 건설을 기대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둘째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의 영향이다. 군사독재는 이 땅에 전시행정을 고질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실패한 점이다. 우리사회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마다 민족의 정기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 보다 시류에 영합하거나 변절한 기회주의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출세하는 풍토를 용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인들이 직접적인 요인

들이라면 인명을 존중하는 사회 기풍을 일삼지 못한 점도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건재의 공공체를 상실한 사람들을 파묻히게 되어주고 아무런 구제 없이 할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던 것이다. 인간의 생명 보다 물질적 가치가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 우리 정부의 현실이다. 높은 중산 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의로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상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내지 열등감을 심화시켰다. 산업구조에 따른 국민층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부끄러운 질문을 거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기인한 것이든 인과한 미련을 갖지않 준비에 소홀해서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회현대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현대의식이 결여되므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인회식이 결여된 시민정신, 기업윤리의 상실, 고발정신이나 법외의식의 심층 풍을 안락화하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 즉 사회현대의식의 함양이 초석이다. 그 초석을 바탕으로 건국민족적인 '머물어 미련'을 양성해야 한다. '머물어 삼의 미련'이 한국 민족의 심층을 형성한다면 성수대교와 같은 인재로 죽음하게 인명을 빼앗기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도같은 2천년이란 숫자 불 자랑하기 보다 더불어 삼의 미련을 양성하는 시민은총을 전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정신을 확고하게 이 민족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 사설

#### 전문가의견

#### 편집국에서

### 현대 만평



부산 FM 89.9MHz      서울 FM 101.9MHz      광주 FM 89.7MHz

## 불교방송을 부산, 경남지역과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와 지방문화 창달의 새 지평을 열어가길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이 곧 탄생됩니다. 부산·경남지역과 광주·전남지역 일부를 가청권으로 한 불교부산방송, 불교광주방송은 정부로부터 95년 4월 10일까지 준공을 조건으로 설립을 허가 받았으나, 본사는 늦어도 95년 2월까지 개국을 목표로 방송시설공사와 기자재 발주 등 모든 업무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사는 부산·경남지역, 광주·전남지역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의 뜻을 모아 지방국을 어렵게 설립하여, 불자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 설립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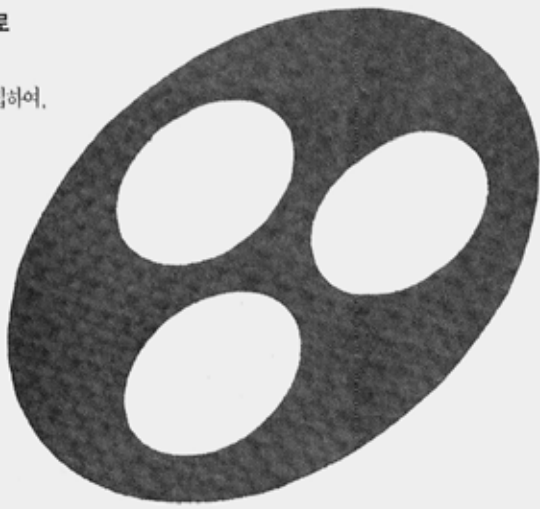
- \* 주 피 수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 \* 시 험 방 송 95년 1월 8일(성도절)
- \* 개국예정일 95년 2월 1일
- \* 사 목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833-13 보성빌딩 10, 11층(부산)
- \* 광주직할시 북구인동 78-2 대수 빌딩 2층(광주)
- \* 전 화 051-644-5114(부산) 062-528-6261(광주)

○ 불교부산방송 설립성금 접수

연월일	구 비 번 호	지점명	예금주
국 민 은 행	129-01-0000-650	법정동불교방송	불교방송
농림중앙회	905-17-001278	부산간지점	-
부산은행	001-04-0130-761	본 지점	-
부산은행	020-13-000218-6	본 지점	-
지점은행	050-13-25049-2	법정동지점	-
한일은행	041-173791-13-201	법정동지점	-

○ 불교광주방송 설립성금 접수

연월일	구 비 번 호	지점명	예금주
광주은행	013-127-004081	광주지점	불교광주방송
농림중앙회	616-01-076513	광주지점	-
동소기업은행	189-030430-01-011	광주지점	-



# BBS 불교방송

- 경력·신입사원 모집
-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 지 역 | 모집부서    | 구분  | 인원  | 응시자 격  |
|-----|---------|-----|-----|--|
| 부 산 | 방송제작 PD | 신 입 | 0명  | 신도신원   |
|     |         | 경 력 | 60명 | • 영구대학 졸업이력 또는 졸업예정자<br>남 자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br>여 자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br>경력사원 |
| 광 주 | 방송제작 PD | 신 입 | 0명  | 신도신원   |
|     |         | 경 력 | 60명 | • 영구대학 졸업이력 또는 졸업예정자<br>남 자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br>여 자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         |
- 2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필요한 과목은 논술 적인 것임) 3차 면접
- 3 제출서류 11 입사지원서(소장양식) / 1부 21 영입권 약관 / 2부 31 자격증 사본(방송기술종종 소지자에 한함) 41 대학 전학한 입학생의 경우 / 1부
- 4 원서교부 일시 및 접수  
- 일 시 1994년 11월 1일 ~ 11월 9일(수)  
- 교부 및 접수 본 사 서울 마포구 예문로 180번지 대 B D 15F(T 02-705-5224-6)  
불교부산방송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833-13 보성빌딩 B D 10 11F(T 051-644-5114)  
불교광주방송 광주직할시 북구인동 78-2 대수 빌딩 B D 2F(T 062-528-6261)
- 5 기타 사항 11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례에 따라 우선순 2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